

지속가능 성장을 위한

경제주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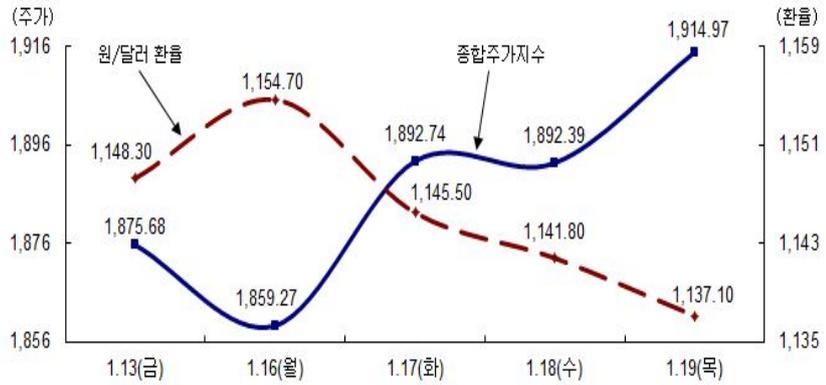
Weekly Economic Review

- 잠재성장률의 위기
 -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3%대로 추락



Better than
the Best!

週間 主要 經濟 指標 (1.13~1.19)



차 례

주요 경제 현안	1
□ 잠재성장률의 위기	1
주요 국내외 경제지표	12

□ 본 자료는 CEO들을 위해 작성한 주간별 경제 경영 주요 현안에 대한 설명 자료입니다.
□ 본 보고서에 있는 내용을 인용 또는 전재하시기 위해서는 본 연구원의 허락을 얻어야 하며, 보고서 내용에 대한 문의는 아래와 같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괄 : 한 상 완 산업연구본부장 (2072-6230, swan@hri.co.kr)
□ 작성 : 주 원 수석연구위원 (2072-6235, juwon@hri.co.kr)
조 규 림 연구원 (2072-6240, jogyurim@hri.co.kr)

Executive Summary

□ 잠재성장률의 위기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잠재성장률 3%대로 추락

한국 경제의 잠재성장률을 추정된 결과 외환위기 이후 글로벌 금융위기 직전 ('98~'07년) 4.7%에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08~12년) 3.8%로 급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생산요소 투입 감소, 내수 취약, 리딩 산업의 부재 등이 원인

이러한 잠재성장률 하락의 원인은 첫째, 투자 부진으로 성장잠재력의 원천인 자본 축적이 저하되는 현상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외환위기 이후 투자 부문이 급격한 침체 국면에 진입함에 따라 투자가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게 낮아지고 있다. 반면 국내 경제의 자연스러운 투자수익률(자본의 한계생산성) 하락과 신흥 공업국 고성장에 따른 해외투자 기회 확대로 국내 자본의 해외투자/국내투자 비율이 빠르게 상승하고 있다.

둘째, 전체 인구 증가세가 둔화되는 가운데 청장년층의 주력 경제활동인구 비중도 감소함에 따라 생산요소의 한 축인 노동투입력이 약화되었다. 생산가능인구증가율이 빠르게 둔화되고 있어 수년 내 생산가능인구 감소가 우려되고 있다. 특히 인구구조의 고령화는 노동투입력의 질적 수준을 더욱 취약하게 만드는 원인이 되고 있다.

셋째, 수출의 부가가치 창출력이 급격하게 약화되는 가운데 교역조건마저 악화되어 수출로부터의 실제적인 이익이 축소되었다. 국제 분업의 확대, 원자재 가격의 상승 등으로 수출이 경제에 직간접적으로 유발하는 부가가치가 상대적으로 빠르게 축소되었다. 특히 90년대 중반 이후 교역 조건이 급격하게 악화되면서 수출로부터 유발되는 경제적 실익이 축소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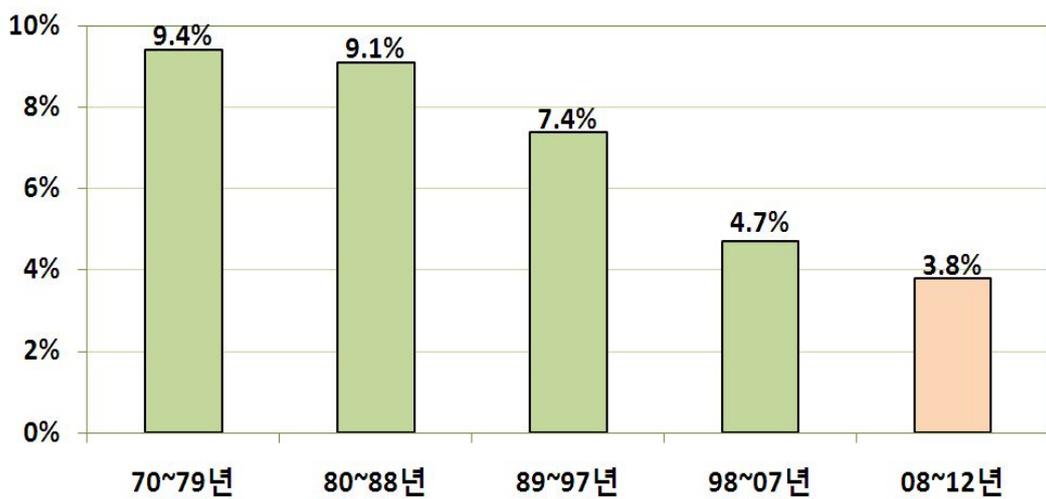
넷째, 내수 부문의 성장 기여도가 취약한 수준에 머물고 있어 최근과 같이 글로벌적 요인으로 수출 경기가 위축되어도 내수 부문이 경제의 안전판 역할을 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수출드라이브 중심의 경제발전 전략의 한계로 내수증가율이 수출증가율을 하회하는 현상이 장기간 지속되고 있다. 이에 따라 내수 부문 비중 및 기여도가 미약한 수준에 머물러 글로벌 금융위기와 같은 대외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기능이 상실되었다.

다섯째, 새로운 주력 산업을 모색하고 있으나 뚜렷한 신성장 산업의 출현이 지연되고 있다. 7, 80년대의 성장 산업이 현재에도 주력 산업의 역할을 하고 있는 모습과 같이 새로이 부각되는 성장 산업을 찾아보기 어렵다. 특히 현재 성장 리딩 산업인 IT 산업의 수출 비중이 2000년 이후 점차 낮아지는 상황이라서 IT 이후의 신성장 산업 모색이 절실한 상황이다.

■자본·노동 확충, 고부가화, 내수 발전, 신성장 산업 육성 등이 필요

잠재성장률의 하락을 막기 위해서는 첫째, 성장잠재력의 토대인 자본 확충을 위해 기업 투자 활성화에 정책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 **둘째,** 노동력 부족에 대응하여 인적자본의 고도화를 통한 생산성 증대 및 노동 투입 규모의 절대적 수준 위축 방지에 주력해야 한다. **셋째,** 수출의 부가가치 창출력 제고를 위해 제품의 고부가가치화 및 핵심 부품·소재 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힘써야 한다. **넷째,** 장기적으로 내수 시장 및 서비스산업의 육성을 통해 내외수 균형성장을 도모해야 한다. **다섯째,** 차세대 성장의 발판이 될 수 있는 신성장 부문에 대해 보다 적극적인 시장 육성과 산업화 노력이 필요하다.

< 한국 경제의 잠재성장률 추이 (기간중 연평균 증가율) >



자료: 현대경제연구원 자체 추정.

주: 단순 추세법 (HP-필터링)을 이용하여 추정. 기간별 구분의 주요 분기점으로는 1980년 오일쇼크, 1988년 서울올림픽, 1997년 외환위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선정하였으며 점정결과 각 시점에 대해 실질 GDP 데이터에 구조적 변화가 발생하였을 개연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요약 >

한국 경제의 잠재성장률

☘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 4.7%에서 이후 3.8%로 추락

7.4%	→	4.7%	→	3.8%
외환위기 이전 (‘89~’97)		금융위기 이전 (‘98~’07)		금융위기 이후 (‘08~’12)

최근 잠재성장률 하락의 원인

☘ 투자 부진

투자 부진으로 성장잠재력의 원천인 자본 축적 저하 현상이 지속

☘ 노동투입력 약화

생산가능인구 증가세 둔화, 청장년층 비중 축소

☘ 수출의 부가가치 파급효과 하락

수출의 부가가치 창출력이 급락 및 교역조건 악화로 수출 파급력 약화

☘ 내수 부문의 취약

글로벌적 충격에 대한 내수 부문의 경제 안전판 역할 상실

☘ 신성장 산업 출현의 지연

주력 산업의 성장 정체 속 신성장 동력의 출현 지연

시 사 점

첫째, 자본 확충을 위한 기업 투자 활성화에 주력

둘째, 인적자본 고도화를 통한 생산성 향상 및 노동력의 양적수준 위축 방지

셋째, 수출제품의 고부가가치화 및 핵심 부품소재 산업의 경쟁력 강화

넷째, 내수 시장 및 서비스산업의 육성을 통한 내외수 균형성장 도모

다섯째, 신성장 부문에 대한 적극적인 시장 육성과 산업화 노력

1. 개 요

○ 잠재성장률의 의미와 추정방법

- (의미) 잠재성장률이란 잠재 GDP의 성장속도로 일반적으로 한 국가의 경제가 안정적으로 성장하는 중장기 성장 추세를 의미
 - 잠재 GDP란 적정 인플레이션 수준 하에서 한 국가가 사용가능한 자원을 활용하여 생산할 수 있는 최대 생산수준을 의미
- (추정방법) 잠재성장률은 실제 관측이 불가능한 개념이나 추정목적에 따라 생산함수 접근법, 시계열 접근법, 구조모형 접근법 등 다양한 계량분석방법을 통해 추정하는 것이 일반적임
 - 생산함수 접근법은 노동과 자본 등 생산투입요소와 생산수준 간 관계를 통해 잠재 GDP를 추정하는 방법으로 잠재성장률의 변화를 성장회계요인을 중심으로 미시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음
 - 시계열 접근법은 시계열 상의 추세 변동을 예측하는 것이 핵심이며, 이 중 필터링을 통한 추세 GDP 방식은 경기순환 상의 현 위치를 파악하는 데 편리하기 때문에 실증분석에서 널리 사용되어지고 있음
 - 구조모형 접근법은 경제이론에 기반한 모형을 바탕으로 잠재 GDP를 추정하게 되며, GDP 및 다른 설명변수 간 상호작용을 분석할 수 있음

○ 기존 연구결과

- 한국개발연구원(2011), 국회예산정책처(2011)는 생산함수 접근법을 사용하여 한국경제의 잠재성장률을 추정
 - 한국개발연구원(2011)은 성장회계를 통한 분석 결과 2001~2007년 사이 잠재성장률이 4% 중반이었으며 최근 잠재성장률은 4.3%로 다소 하락하였으나 금융위기 이전 성장 추세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
 - 이는 글로벌 금융위기가 직접적으로 국내 금융시스템에 전이되지 않았으며, 노동, 자본 및 총요소생산성 등 우리 경제의 성장요인이 빠르게 회복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하고 있음

- 반면 국회예산정책처(2011)는 금융위기 이후 노동투입과 투자가 추세적으로 위축되어 잠재성장률은 2004~2007년에 4.3%에서 2011~2015년 3.7%로 하락할 것을 전망함
- 한편 OECD(2010)는 중장기적으로 저출산 및 고령화로 인해 한국 경제의 잠재성장률이 2010~2011년 4.0% 수준에서 2012~2025년 2.4%로 하락할 것을 전망함

< 국내외 주요 기관별 국내 잠재성장률 최근 추정치 >

KDI	연도	1990~1997	2001~2007	2011~2012
	추정치	6%중반	4%중반	4.3%내외
NABO	연도	2004~2007	2006~2010	2011~2015
	추정치	4.3%	4.0%	3.7%
OECD	연도	2010~2011		2012~2025
	추정치	4.0%		2.4%

자료 : 기관별 발표 자료 참조.

2. 잠재성장률의 추정

○ 본 보고서에서의 잠재성장률 추정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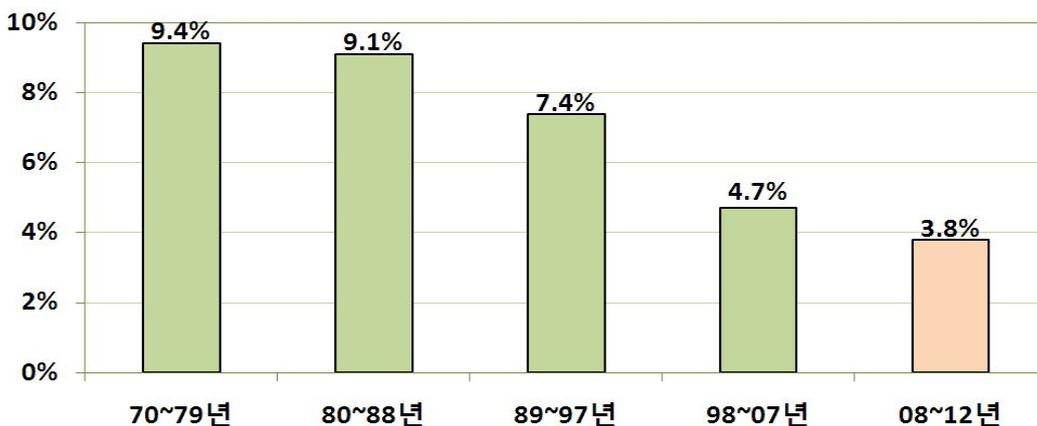
- 시계열 접근법을 통한 추세 GDP 방식으로 잠재 GDP를 산출한 후, 국내 경제의 주요 분기점을 기점으로 기간별 연평균 잠재성장률을 계산함
 - 1970년부터 2012년까지 실질 GDP를 HP 필터링을 통해 추세를 추출하여 잠재 GDP를 산출하였음
 - 한편 기간별 잠재성장률의 변화를 알아보기 위해거시경제지표에 큰 변화가 있던 시점 근방을 기준으로 차우 테스트(Chow test)¹⁾를 통해 주요 경제적 사건의 구조 변화를 검정함
 - 거시경제지표에 큰 변화가 있던 주요 시점으로는 1980년 오일쇼크, 1988년 서울올림픽, 1997년 외환위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선정하였으며, 검정결과 각 시점에 대해 실질 GDP 데이터에 구조적 변화가 발생하였을 개연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1) 차우 테스트(Chow test): 시계열 데이터의 기간을 나누는 후 각 기간의 데이터에 대한 회귀모형을 추정하여 얻은 계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다른지 검정하는 테스트임.

○ 잠재성장률 추정 결과

- 추세 GDP 방식으로 잠재 GDP를 추정한 결과 국내 잠재성장률은 1980년대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추세임
 - 국내 잠재성장률은 1970년대 들어 점진적으로 낮아졌으나 1980년대 초반에는 기간산업투자 확대 및 '3저 현상'로 다시 상승함
 - 그러나 1980년대 중반 이후 최근까지 하락하는 추세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
- 기간별 평균 잠재성장률을 보면 외환위기 이전 7.4%에서 금융위기 직전 4.7%에서 금융위기 이후에 3.8%로 급락하는 모습을 나타냄
 - 기간별 평균 잠재성장률을 보면 고도성장기('70~'79)에 9.4%에 달하며, 석유파동 및 3저 호황기('80~'88)에도 9.1%의 높은 수준을 유지함
 - 올림픽 이후 외환위기 전인 신경제시대('89~'97) 기간에는 7.4%로 하락하였으며, 외환위기 이후 금융위기 직전 기간('98~'07)에는 4.7%로 낮아짐
 - 한편 2008년 금융위기 이후인 금융위기충격기('08~'12) 5년간 평균 잠재성장률은 3.8%로 금융위기 이전 수준 대비 0.9%p 하락한 것으로 나타남

<잠재 성장률 추이>



자료: 현대경제연구원 자체 계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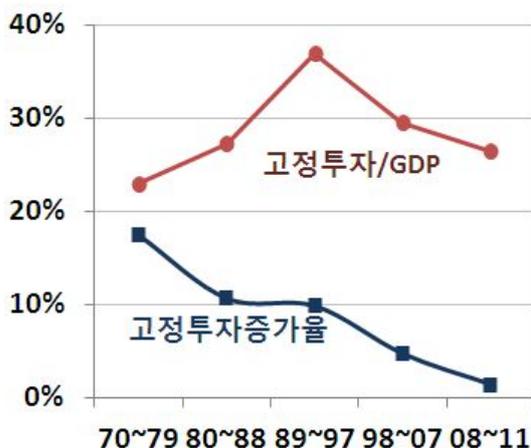
주: 1) HP필터링을 이용, 기간중 수치는 연평균 성장률

2) 2011년과 2012년 GDP는 현대경제연구원 전망치를 사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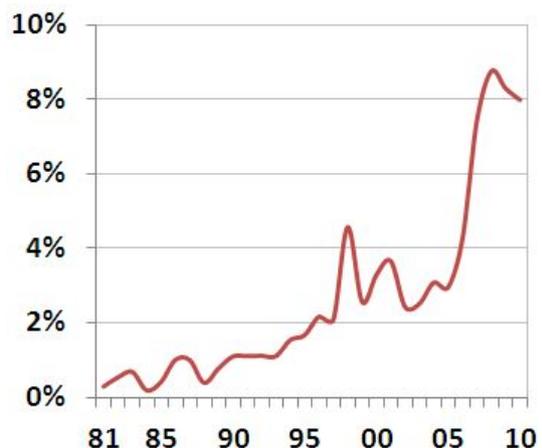
3. 잠재성장률 하락의 원인

- (투자 부진에 따른 자본축적 저하) 투자 부진으로 성장잠재력의 원천인 자본 축적이 저하되는 현상이 지속
 - 외환위기 이후 투자 부문이 급격한 침체 국면에 진입함에 따라 투자가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게 낮아짐
 - 실질 고정투자 증가율은 고도성장기('70~'79) 연평균 17.8%에서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금융위기 이후('08~'11)에는 연평균 1.3%에 그치고 있음
 - 이에 따라 고정투자/GDP 비중은 신경제시대('89~'97) 평균 약 37%에 달하기도 하였으나 금융위기 이후 평균 26% 내외 수준에 불과한 실정임
 - 반면 국내 경제의 자연스러운 투자수익률(자본의 한계생산성) 하락과 신흥 공업국 고성장애 따른 해외투자 기회 확대로 국내 자본의 해외투자/국내 투자 비율이 급격하게 높아지는 추세임
 - 해외투자/국내투자 비율은 80년대 1% 미만에 불과하였으나 자본자유화와 외환위기를 거치면서 지속적으로 높아져 2010년 현재 8% 내외를 기록하고 있음

<고정투자/GDP 및 고정투자증가율>



<해외투자/국내투자 비율>



자료: 한국은행 및 수출입은행 통계를 이용한 자체 계산.

주: 1) 고정투자 = 설비투자 + 건설투자 + 무형고정자본형성

2) 해외투자/국내투자 비율은 명목기준.

○ (고령인구 비중 증가에 의한 노동투입력 약화) 전체 인구 증가세가 빠르게 둔화되는 가운데 청장년층의 주력 경제활동인구 비중도 감소함에 따라 생산요소의 한 축인 노동투입력이 약화됨

- 생산가능인구증가율과 총인구증가율의 격차가 빠르게 축소되는 가운데 향후 생산가능인구의 감소가 우려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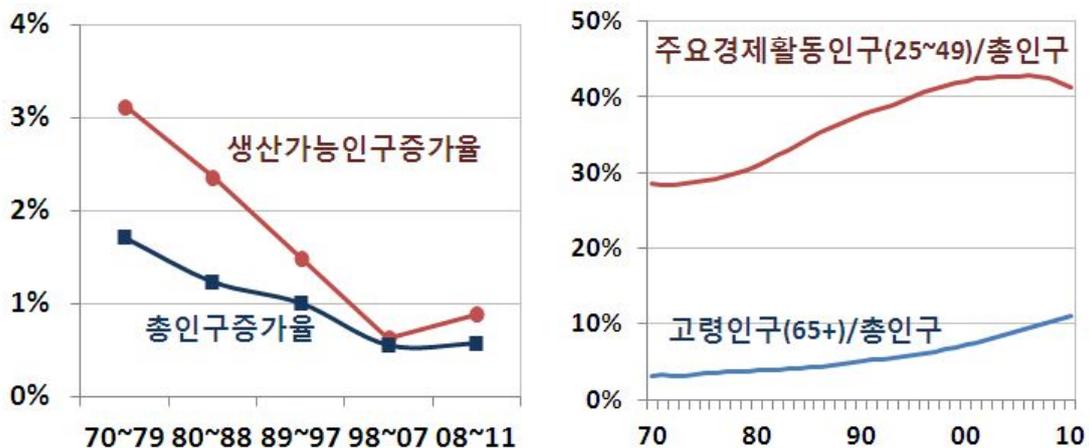
- 생산가능인구 증가율은 고도성장기('70~'79) 연평균 3.2%에서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금융위기 이후('08~'11)에는 0.9%에 불과함
- 특히 통계청은 향후 생산가능인구가 2016년 3,704만 명(72.9%)을 정점으로 감소하여 2060년 2,187만 명(49.7%) 수준으로 하락할 것을 전망함

- 특히 인구구조의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어 노동투입력을 더욱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함

주요경제활동인구(25~49세)/총인구 비중은 2006년 42.8%의 정점을 전환점으로 하락 추세로 돌아서는 모습임

- 고령인구(65세 이상)/총인구 비중은 1970년 3.1%에서 1990년 5.1%에 이어 2008년 10%를 상회한 이후 2010년 현재 11.0%에 이르는 등 빠른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어 경제의 부양 부담도 높아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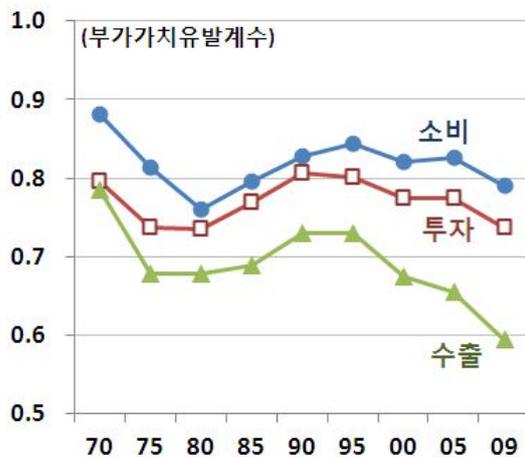
<총인구 및 생산가능인구 증가율> <주요경제활동인구 및 고령인구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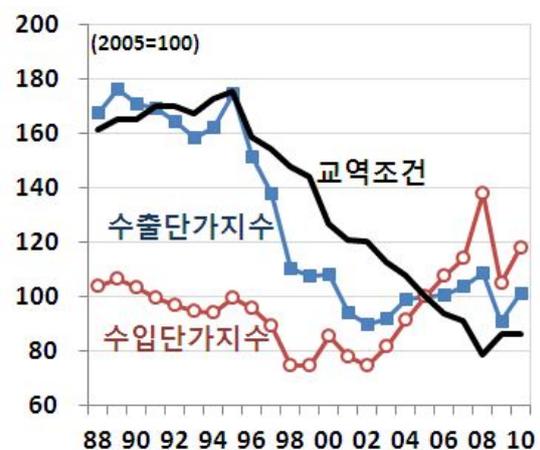
자료: 통계청 자료를 이용한 자체 계산.
 주: 생산가능인구 = 15~64세 인구.

- (수출의 부가가치 파급효과 하락) 90년대 중반 이후 수출의 부가가치 창출력이 급격하게 약화되는 가운데 교역조건마저 악화되어 수출로부터의 실제적인 이익이 축소됨
- 국제 분업의 확대, 원자재 가격의 상승 등으로 수출이 경제에 직간접적으로 유발하는 부가가치효과가 빠르게 축소됨
 - 수출의 부가가치 유발계수는 90년대 중반까지 소비 및 투자와 일정한 격차를 유지하였으나,
 - 1995년 0.729에서 2009년 0.594로 빠르게 축소되며 소비 및 투자의 부가가치유발계수와의 격차가 확대됨
 - 수출 부가가치유발력의 급락은 다(多) 부품·소재 특성의 중화학제품 수출 비중 증가, 국제 분업 확산 추세 등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판단됨
- 특히 90년대 중반 이후 교역 조건이 급격하게 악화되면서 수출로부터 유발되는 경제적 실익이 축소되는 결과를 초래함
 - 무역시장에서의 경쟁이 심화되면서 수출 단가가 하락하고 국제원자재 가격이 오르면서 주요 수입 원부자재 가격이 상승하여 교역조건이 급격하게 악화됨
 - 순상품 교역조건은 1995년 175.3(2005년=100)에서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2010년 86.0에 이르고 있음

<최종수요 부문별 부가가치유발계수> <수출입단가지수 및 교역조건지수>



자료: 한국은행 통계를 이용한 자체 계산.
주: 자체 7부문 통합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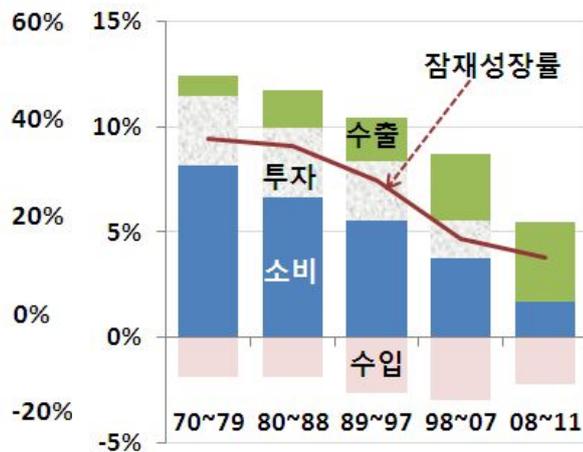
자료: 한국은행.
주: 교역조건지수는 순상품교역조건 기준.

- (내수 부문의 취약) 내수 부문의 성장 기여도가 취약한 수준에 머물고 있어 최근과 같이 글로벌적 요인으로 수출 경기가 위축되어도 내수 부문이 경제의 안전판 역할을 하기 어려운 상황임
- 수출드라이브 중심의 경제발전 전략의 한계로 내수증가율이 수출증가율을 하회하는 현상이 장기간 지속됨에 따라 내수 부문 비중이 위축되어 경제의 안전판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임
 - 특히 내수 부문은 외환위기와 카드사태 등의 영향으로 크게 위축되면서 최근까지도 수출증가율을 넘어서지 못하고 있음
 - 이에 따라 실질 가치 기준 내수/수출 비중은 1970년 31배에서 1990년 7.9배 2000년 3.3배에 이어 2010년 현재 1.9배로 크게 낮아짐
- 수출의 성장 기여도는 상승 추세를 지속하는 반면 소비와 투자의 내수 부문 성장 기여도는 시간이 갈수록 위축되고 있는 상황임
 - 소비 성장기여도는 고도성장기('70~'79) 연평균 8.2%p에서 지속 하락하여 금융위기 이후('08~'11)에는 1.7%p에 불과한 실정이고 총투자는 성장 기여도가 고도성장기('70~'79) 3.2%p에서 금융위기 이후('08~'11)에는 0%p를 기록함
 - 반면 수출의 성장기여도는 고도성장기('70~'79) 연평균 1.0%p에서 상승 추세를 보여 외환위기 이후('08~'11)에는 3.8%p에 달하고 있음

<내수/수출 비율>



<수요부문별 성장 기여도>



자료: 한국은행 통계(실질가치 기준)를 이용한 자체 계산.

주: 1) 내수 = 소비 + 투자, 수출 = 재화와 서비스 수출
 2) 부문별 성장 기여도는 기간중 연평균으로 환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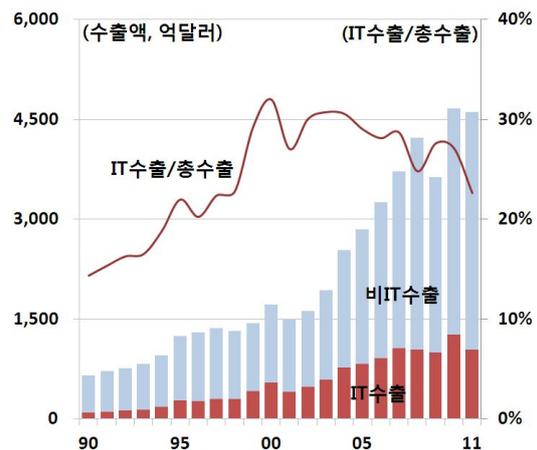
- (신성장 산업 출현의 지연) 기존 주력 산업의 성장이 정체되는 가운데 신 성장 산업의 출현이 지연되고 있음
- 7, 80년대의 성장 산업이 현재에도 주력 산업의 역할을 하고 있는 모습과 같이 새로이 부각되는 성장 산업을 찾아보기 어려움
 - 7, 80년대 철강, 기계, 전자, 자동차·조선 등의 고성장 제조업종이 현재에도 여전히 주력 산업의 역할을 지속하는 등 제조업에서 새롭게 부각되는 산업을 찾기가 어려움
 - 또한 운수·보관, 금융·보험, 정보통신서비스업 등 제조업 연관 고부가 서비스 업종의 성장률도 둔화되는 등 서비스 부문에서도 성장 산업이 나타나지 않고 있음
 - 특히 현재 성장 리딩 산업인 IT 산업의 수출 비중이 2000년 이후 점차 낮아지는 상황이어서 IT 이후의 신성장 산업 모색이 절실한 상황임
 - IT수출/총수출 비중은 2000년 32%를 정점으로 하락하여 2011년 1~10월 현재 22.6%로 낮아짐
 - 특히 IT 수출 규모 자체가 2007년 이후 1,000억 달러 대에서 정체되고 있어 수출 성장세가 크게 약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주요 산업의 연평균 생산증가율>

	70~79	89~97	98~07	08~11
화학	14.0%	10.6%	5.9%	3.7%
철강	27.5%	8.0%	6.0%	5.0%
기계	30.8%	13.8%	12.7%	14.5%
전기전자	35.0%	12.1%	18.9%	10.6%
운송장비	20.6%	14.7%	12.3%	5.9%
건설	11.6%	7.5%	1.4%	-1.7%
운수보관	11.7%	7.2%	6.1%	2.4%
금융보험	17.8%	11.1%	6.0%	2.7%
IT서비스	18.1%	17.3%	11.6%	3.9%

자료: 한국은행 통계를 이용한 자체 계산.
주: 산업별 명칭은 각주 참조2)

<IT수출/총수출 비중 추이>



자료: 한국무역협회.
주: 2011년은 1~10월 기준.

2) '화학'은 국민계정 경제활동별 산업분류상 석유 및 석탄 및 화학제품 제조업, '철강'은 금속 제품, '기계'는 일반기계, '전자'는 전기전자기기, 'IT서비스'는 정보통신업에 해당됨.

4. 시사점

○ **잠재성장률 급락 현상을 막기 위해 자본·노동 확충, 고부가화, 내수 발전, 신성장 산업 육성 등의 노력이 지속되어야 할 것임**

첫째, 성장잠재력의 토대인 자본 확충을 위해 기업 투자 활성화에 정책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

- 가장 중요한 성장 요인인 자본 확충을 위해 기업 규제를 완화하는 수준을 넘어 실효적인 투자 인센티브 패키지를 만들어야 할 것임
- 또한 외국인 투자 유치 확대를 위해 조세, 토지비용, 노사관계, 행정규제, 주거환경 등 모든 측면에서 경쟁력을 갖추도록 제도를 재정비해야 할 것임

둘째, 노동력 부족에 대응하여 인적자본의 고도화를 통한 생산성 향상 및 노동투입력의 양적 규모의 급격한 축소를 방지해야 한다.

- 공교육 체계 정비, 산·학간 연계 강화, 노령인력의 재교육, 퇴직자의 전직 지원 등의 인적자본 고도화 정책을 통한 생산성 제고에 주력해야 할 것임
- 또한 보육시설 확충, 육아휴직 활성화 등을 통해 출산율 제고에 적극 노력하여 생산가능인구 감소에 대응해야 할 것임
- 특히 국내 노동력 부족 문제의 효과적 해결책이 될 수 있는 외국인 근로자의 활용에 대한 보다 체계적인 인력 정책이 필요함
 - 불법 체류, 산업 재해, 인권 피해 등의 문제 해결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정비하는 등 다각적 차원에서 외국인근로자의 성공적인 국내 사회 정착을 지원해야 할 것임
 - 한편, 국내 산업의 고도화를 도모할 수 있는 외국전문인력의 유치 방안 및 지원 제도 등을 강화하여 단순 노동력 위주의 외국인력 집중 문제를 해소해야 할 것임

셋째, 수출의 부가가치 창출력 제고를 위해 제품의 고부가가치화 및 핵심 부품·소재 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노력해야 한다.

- 수출 제품의 고부가가치화를 위해서는 연구개발 투자 확대를 통해 기술경쟁력을 확보함으로써 글로벌 시장에서 고부가가치 하이엔드(High End)제품에 대한 비중을 높여 나가야 함
- 또한 원천 기술의 R&D 투자 확대, 산·학·연 연구네트워크 활성화, 제품의 국제 표준 선점 등을 통해 핵심 부품·소재 산업을 육성함으로써 수출제조업의 높은 수입유발효과 문제를 개선해야 할 것임

넷째, 장기적으로 내수 시장 및 서비스산업의 육성을 통해 내외수 균형성장을 도모해야 한다.

- 소비자 보호제도의 강화, 유통 구조의 개혁, 상거래 제도의 투명성 확보 등을 통한 건전한 소비 시장의 육성에 주력해야 할 것임
- 또한 서비스산업의 육성의 가장 큰 원칙은 대외 시장 개방을 통한 경쟁력 제고와 내수 시장의 협소성을 탈피하기 위한 해외 시장 공략 강화에 있음
 - 그동안 국내 시장에 안주하고 있던 교육, 의료, 사업서비스 등의 부문에 대해서 시장 개방을 통한 글로벌 경쟁 환경 적응력을 높여나가야 할 것임
 - 특히 우리 서비스업 중 경쟁력이 있는 유통, 통신, 물류 등의 분야에 대한 적극적인 해외시장 개척 노력이 필요함

다섯째, 차세대 성장의 발판이 될 수 있는 신성장 부문에 대해 보다 적극적인 시장 조성 및 산업화 노력이 필요하다.

-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산업지도 변화를 기회로 활용할 수 있도록 범국가적 차원에서 미래사업 육성이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임
- 특히 신성장 부문이 첨단 기술을 근간으로 할 것이기 때문에 국가 R&D 투자에 있어 정책 추진 및 관리 통합화, R&D와 사업화 연계 강화, 신기술 인력 양성 지원 등의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함

- 한편 산업화 단계에 가장 근접해 있는 녹색 산업과 관련하여 관련 국내 시장 육성 및 해외 시장 진출 도모, 견고한 부가가치 사슬을 가지는 산업 생태계의 조성이 요구됨 **HRI**

주 원 수석연구위원 (juwon@hri.co.kr, 2072-6235)

조규림 연구원 (jogyurim@hri.co.kr, 2072-6240)

주요 국내외 경제지표

□ 국내외 성장률 추이

구분	2010년					2011년				2012년
	연간	1/4	2/4	3/4	4/4	연간*	1/4	2/4	3/4	
미국	3.0	3.9	3.7	2.5	2.3	1.5	0.4	1.3	1.8	1.8
유로 지역	1.8	0.4	1.0	0.4	0.3	1.6	0.8	0.2	0.2	1.1
일본	3.9	6.0	2.1	3.3	-1.1	-0.5	-3.6	-1.3	5.6	2.3
중국	10.3	11.9	11.1	10.6	9.8	9.5	9.7	9.5	9.1	9.0
한국	6.2	8.5	7.5	4.4	4.7	4.2	4.2	3.4	3.5	4.0

주: 1) 2011년, 2012년 전망치*는 IMF 2011년 9월 기준이고 한국은 현대경제연구원 전망치임
 2) 미국, 일본은 전기대비 연율, EU는 전기대비, 중국, 한국은 전년동기대비 기준임.

□ 국제 금융 지표

구분	2010년말	2011년		2012년			
		6월말	12월말	1월 13일	1월 19일	전주비	
해외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	3.30	3.16	1.88	1.88	1.98	0.10%p
	엔/달러	81.19	80.66	77.66	76.77	76.81	0.04¥
	달러/유로	1.3350	1.4492	1.2955	1.2813	1.2858	0.0045\$
	다우존스지수(p)	11,578	12,414	12,218	12,422	12,624	202p
	닛케이지수(p)	10,229	9,817	8,455	8,500	8,640	140p
국내	국고채 3년물 금리(%)	3.38	3.76	3.34	3.37	3.38	0.01%p
	원/달러(원)	1,134.8	1,067.7	1,151.8	1,148.3	1,137.1	-11.2원
	코스피지수(p)	2,051.0	2,100.7	1,825.7	1,875.7	1,915.0	39.3p

□ 해외 원자재 가격 지표

구분	2010년말	2011년		2012년			
		6월말	12월말	1월 13일	1월 19일	전주비	
국제 유가	WTI	91.40	95.18	99.22	98.91	100.32	1.41\$
	Dubai	88.80	106.75	104.89	109.84	109.47	-0.37\$
CRB선물지수	332.80	338.05	305.30	307.70	311.96	4.26p	

1) CRB지수는 CRB(Commodity Research Bureau)사가 곡물, 원유, 산업용원자재, 귀금속 등의 주요 21개 주요 상품선물 가격에 동일한 가중치를 적용하여 산출하는 지수로 원자재 가격의 국제기준으로 간주됨.



現代經濟研究院
HYUNDAI RESEARCH INSTITUTE